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 시론*

조 금 호

서강대학교

본고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인평가의 제반 차이를 필자(1988, 1990a)가 제시한 대인평가 이원모형으로 조감해 보고, 이를 통해 이 모형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인식차로부터 연유한다는 전제에서, 이로부터 도출되는 두 문화권에서의 지배적인 인간관의 차이가 결국은 대인평가에서의 제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가정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차이는 필자의 이원모형을 구성하는 우월성가설과 정교화가설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원모형의 확대 시안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이 지향해 왔던 인간의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리의 추구가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Gergen(1973)에 이은 일련의 논쟁(Manis, 1975; Sampson, 1978, 1983; Schlenker, 1974; Triandis, 1978 등)을 거쳐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존재구속성(Gergen, 1985; Shweder, 1990; Shweder & Miller, 1985)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Pepitone & Triandis, 1987; 민경환, 1986; 한규석, 1991a, b).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보편성 추구의 허구성에 관한 논거는 다음의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밝혀진 많은 원리들이 실상은 서구인 특히 미국 백인이 가

지고 있는 고도의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문화 특수적인 것일 뿐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심리학에서 자명한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여졌던 Piaget(1926)의 인지 능력의 발달 원리(인간의 인지 능력은 구체적 추론 양식에서 추상적 추론 양식으로 발달한다는 원리)나 Ross(1977)의 근본적 귀인 오류(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상황적 요인보다는 그의 성향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는 동양문화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인도인은 미국인과는 달리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타인의 행동을 구체적 대인관계의 맥락에 따라 기술해 내거나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다(Miller, 1984, 1986, 1987, 1991; Miller & Bersoff, 1992; Miller, Bersoff, & Harwood, 1990; Miller & Luthar, 1989 등).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원리들이 바로 자율적·자기결정적·독립적인 개인을 이상적 인간형으로 보아 개인이 궁극적인 행위의 원천이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완성으로 지향한다는 서구 특히 미국식

* 본 연구는 연암문화재단의 91/92년도 해외연수교수 지원연구비의 도움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연암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이 논문의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Michigan대학교의 Richard E. Nisbett교수, Hazel R. Markus교수 및 Stanford대학교의 Michael W. Morris교수에게 특별한 사의를 표한다.

개인주의의 인간관(Gergen & Gergen, 1988; Gilligan, 1982; Markus & Kitayama, 1991; Sampson, 1977, 1989; Schwartz, 1986; Zebrowitz, 1990 등)의 반영일 뿐임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행동의 문화간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 심리학의 입장이 목적론적 관점(teleological viewpoint)이 갖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Bond & Hwang, 1986; Miller, 1984 등). 기존의 심리학에서 문화차를 해석하는 시각은 비서구인은 서구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인지 능력 차이 가설(예: Livesley & Bromley, 1973)과 이들은 추상적 인지 능력의 발달을 가져오는 근대화(modernization)와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험 차이 가설(예: Scribner & Cole, 1973)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개체 발달과 사회 발달의 최종 정착 목표를 추상적 표상 양식(인지 능력 차이 가설)이나 근대화(경험 차이 가설)라고 보는 진화론에 기초한 목적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간 차이는 미분화되거나 미개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인간 행동의 보편적 원리의 도출에 오염변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보아, 이를 제거하거나 도외시하려는 경향을 띄어 왔던 것이다(Aronson, Brewer, & Carlsmith, 1986). 그러나, 추상적 추론 양식 대신 구체적 추론 양식이 특징인 인도인들도 과제에 따라서는 고도의 추상적 추론의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근대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일관적이라는 Miller 등(Miller, 1984, 1986, 1987, 1991; Miller 등, 1989, 1990, 1992)의 결과는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발달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전제하듯이 정해진 방향에 따라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Kuhn, 1962; Shweder, 1984). 이는 고도로 근대화된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범 죄율이 높고, 정신 건강의 지표도 낮다는 사실(Triandis, 1990;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등)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목적론적 견해는 문화우월성(또는 열등성)이라는 제국주의적 사고(또는 체념적 사고)를 낳게 되어 현실 파악이나 개조의 노력을 소홀

히 하게 하고(Ross & Nisbett, 1991),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 체제나 규범의 유지에 기여할 뿐인 심리학으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Sampson, 1983)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사회심리학은 탈맥락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관점(서구식 개인주의의 관점)에 함몰되어 대상을 인식하는 자이중심성”(이수원, 1990, p.63. 팔호 안은 필자의 삽입)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이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역사적·문화적 존재구속성이라는 인간 행동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 “서구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탈중심화할 필요”(Brislin, Lonner, & Thorndike, 1973, p.37)가 있다. 그리하여 사회심리학은 “현대 세계의 인류학이 되어야 하며”(Moscovici, 1981, p.viii), “사회심리학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과업”(Gergen, 1973, p.316)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회심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비교 연구와 토착심리학 연구가 가지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Bond & Hwang, 1986; 한규석, 1991a).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이러한 보편성 추구 지향은 사회심리학의 핵심 연구 영역 중의 하나인 대인지각 및 사회인지 영역의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대상인물에 대한 지각을 낳는 정보 특성과 그 내용보다는 대상인물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Asch(1946)와 Heider(1958) 이후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Jones, 1985; Markus & Zajonc, 1985; McArthur & Baron, 1983; Zebrowitz, 1990; 조공호, 1986). 이렇게 지각 내용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지각 내용은 항상 의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지각 과정은 일관적이고 동일한 처리 절차가 다양한 내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 지각 내용은 지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전제, 그리고 지각 과정의 분석은 그 내용의 연구에서보다 방법론적인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 등에 그 까닭이 있었다(Fiske & Taylor, 1984). 그 결과 이 분야에서는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가 처리되는 각 단계의 세부 특징의 분석이나(Fiske & Taylor, 1984) 대인지각의 전체 과정에 걸친 단계 모형의 개발(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Wyer & Carlston, 1979)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 행동의 보편적 원리의 허구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또한 사회 상황에서의 사고 과정은 그 내용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Shweder, 1990; Shweder & Bourne, 1984),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사회 추론 과정에 미치는 자극 정보 특성의 영향이 밝혀지므로써(Markus & Zajonc, 1985; McArthur & Baron, 1983) 이러한 과정 중심의 연구 경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대인지각의 연구 분야에서도 문화권에 따라 특출하게 제공되거나 탐색되는 정보 특성과 그로 인한 대인평가 내용의 차이의 분석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었다(Fiske & Taylor, 1991; Markus & Kitayama, 1991).

본고는 지금까지 대인지각의 연구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문화권에 따른 우세 정보와 그로 인한 대상인물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바로 각 문화권에서의 개인 존재와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임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필자(1982, 1990a)가 제시한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확대·수정하므로써 이러한 문화권에 따른 대인평가의 차이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인지각에의 상호작용론적 접근

대인지각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는 연구 영역이다. 이 영역의 연구는 정서재인, 인상형성, 내현 성격이론 및 사회적 추론 등의 분야로 세분되어 이루어졌는데(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Zebrowitz, 1990; 조공호, 1986), 이 중에서 정서재인과 내현 성격이론의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는(Zebrowitz, 1990) 전술한 바대로 Asch(1946)와 Heider(1958) 이후 지각내용보다는 지각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ones, 1985). 즉,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타인의 성격특성이나 행동 원인의 판단이 후속되는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성격특성이나 행동 원인의 판단과 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Zebrowitz, 1990).

이러한 대인평가는 대상인물이 제공하는(또는 대상인물에 대해 제공되는) 자극 정보를 지각자가 수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이러한 처리 과정이 자극 정보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구조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립적인 시각은 지금까지 크게 세가지가 제시되어 왔다(Zebrowitz, 1990).

그 하나는 대인평가는 제시되는 각각의 자극 정보의 함수로서, 지각자는 산술적 연산 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각각의 자극 정보를 통합할 뿐이라는 행동주의적 접근 또는 구조적 접근(structuralist approach)이다(Anderson, 1981 참조). 이는 이른바 “자료주도적 처리”(data-driven processing) 또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처리”(bottom-up processing)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인평가 과정에서의 “즉시적 판단”(on-line judgment; Hastie & Park, 1986)이나 “인물 기초적 조직화”(person-based organization; Brewer, 1988)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접근이다.

또 하나는 대인평가 과정에서의 지각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주의적 접근 또는 구성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이다. 이에는 지각자에 의한 자극 정보의 의미 추출과 이를 기초로 한 전체맥락적(holistic) 인상형성을 강조하는 입장(Asch, 1946)과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구조(Pryor & Ostrom, 1981 참조) 또는 대상인물에 대한 기대나 상호작용의 목표(Jones, 1990; Jones & deCharms, 1957; Jones & Thibaut, 1958)가 대인평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입장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이른바 “이론주도적 처리”(theory-driven processing) 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처리”(top-down processing)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인평가 과정에서의 “기억 근거 판단”(memory-based judgment; Hastie & Park, 1986)이나 “범주기초적 조직화”(category-based organization; Brewer, 1988)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접근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두가지 입장의 대립을 통합하려는 상호작용론적 접근(interactionist approach)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론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대인평가의

과정은 자료주도적 처리나 이론주도적 처리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처리 과정이 공존함을 밝히려는 계열의 연구이다. 이들 중에는 이 두 처리 과정 중 어느 것이 작용하여 대인평가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각자와 대상인물의 상호작용의 적절성(relevancy)과 지각자의 대상인물에의 자아관여(ego-involvement)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Brewer(1988)의 이중 과정 모형(dual process model), 대상인물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범주 확인(category confirmation)의 함수로서 달라진다는 Fiske와 Neuberg(1990)의 연속체 모형(continuum model) 및 대상인물과의 상호작용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Hilton과 Darley(1991)의 상호작용 목표 모형(interaction goal model) 등이 대표적이다.

상호작용론적 접근의 또 한가지 유형은 지각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지각자가 처한 상호작용 상황에 따라 대상인물에 대해 탐색되는 정보 특성의 내용과 그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므로써, 대인평가에서의 대상 인물의 정보 특성과 지각자 내의 처리 과정 및 그 결과(평가 내용) 사이의 공변관계를 탐색하려는 계열의 연구이다. 이에 대한 대인지각의 적응적 기능을 강조하는 McArthur와 Baron(1983)의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이 대표적이며, 필자(1982, 1990a)가 제시한 대인평가의 이원 모형도 이 계열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 문화비교심리학의 연구들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개인 존재 및 개인과 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며,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대인평가의 과정과 그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등)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정보 특성과 지각자 내의 지식 구조 중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나, 상황에 따른 두가지 처리 과정의 공

존관계를 분석하는 접근¹⁾보다는 대상의 정보 특성과 지각자의 처리 내용 사이의 공변관계를 탐색하는 계열의 접근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대인평가의 과정보다는 탐색되는 정보 특성과 그에 기초한 평가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Fiske & Taylor, 1991; Zebrowitz, 1990),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는 증시하는 정보 특성과 평가 내용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McArthur와 Baron(1983)의 생태학적 모형과 필자(1982, 1990a)의 이원모형의 개략을 살펴보므로써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를 조감하는 이론적 틀거리를 모색하는 기초로 삼기로 하겠다.

생태학적 모형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Gibson(1979)이 제시한 사물지각에의 생태학적 접근을 대인지각의 연구에 확대시킨 것으로, 다음의 네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각은 기본적으로 적응적인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 자극 중에서 이러한 적응에 기능적인 내용들이 지각된다. 둘째, 환경 세계 속의 자극 정보는 정지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건(event) 속에 복합양태적(multimodal)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사건 속에 드러나 있는 자극 정보는 환경적인 소여특성(affordance)으로서, 이는 환경적 실체가 제공하는 유인가(valence) 또는 요구특성(Aufforderungscharakter)으로 지각자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넷째, 이러한 소여특성의 지각은 지각자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는 지각적 조율(perceptual attunement)에 의존한다.

이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지각자는 역동적인 사건 속에 드러나는 환경적 소여 특성을 지각적 조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환경 세계에 적응해간다는 것이 이 모형의 골자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여특성과 지각적 조율의 개념이다. 소여특성은 지각자

1) 이러한 공존관계모형들의 기본 가정은 지각자의 대상인물에 대한 자아관여가 높을 때(Brewer, 1988), 대상인물이 지각자에게 중요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대상범주의 확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Fiske & Neuberg, 1990), 그리고 상호작용 목표에 의해 평가자세(assessment set)가 유발될 때는(Hilton & Darley, 1991) 자료주도적 처리 과정에 의해 대상인물에 대해 정교화된 인상이 형성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나 상호작용 목표에 의해 행위자세(action set)가 유발될 때는

(Hilton & Darley, 1991) 이론주도적 처리 과정에 의해 대상인물의 범주에 기초한 고정관념적이고 단순한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비록 다른 형태이긴 하나 필자(1982, 1990a)의 이원모형에도 들어 있던 것이며, 이의 확대시안에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될 확대 모형 시안은 이러한 공존관계모형의 입장도 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제시되는 '모형의 확대'항의 '정교화가설'에 관한 설명을 참조할 것.

의 행동 및 목표에 대한 환경 자극의 적절성에 따라 드러나는 유용성과 같은 개념으로, 이는 “관찰자와의 관계에서 획득된 지각대상의 속성이 관찰자의 경험의 속성이 아니며, 또한 지각자의 주관적 가치도 아니다” (Gibson, 1979, p.137). 즉, 이는 지각자와 지각대상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지각대상의 속성으로서, 모든 지각대상이 모든 지각자에게 동일한 소여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대인평가는 대상인물의 소여특성을 지각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대상인물의 소여특성은 지각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각과정보다는 지각내용을 중시하고, 또한 지각자와 대상인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모형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지각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동일한 대상인물의 소여특성이 대상인물이나 지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McArthur & Baron, 1983) 이 개념이 중요하기는 하나,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것은 지각적 조율의 개념이다. 지각적 조율은 Gibson(1979)이 말하는 “주의 교육”(education of attention)에 의해 도출되는 것으로 지각자의 지각 학습, 목표, 기대 및 행위의 함수로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지각자는 개인적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및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특정 자극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민감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지각적 조율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대상인물의 어떤 특성이나 측면에 선택적으로 주의의 기울어지거나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인평가의 개인차와 문화차의 문제를 조감하는 생태학적 모형의 우수성이 드러나게 된다. Zebrowitz (1990)는 이러한 생태학적 모형을 정서제인, 인상형성, 귀인 및 사회적 추론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편향(bias)의 연구 등의 분야에 적용하여,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화간 차이를 밝혀내므로써 이 모형이 갖는 장점과 이론적 우수성을 입증해 내고 있다.

대인평가의 이원모형 필자(1982)가 제시한 이 모형은 다음 세가지를 기본 전제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조금호, 1990a).

첫째, 지각자와 지각대상인물의 상호작용상황에 따라 인상판단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의해 인상판단 기준의 설정 및 관련 특성의 탐색 등 인상판단의 전체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대인평가의 장면에서 지각자와 지각대상인물의 상호작용상황은 효과의존상황과 정보의존상황으로 나뉘어진다. 셋째, 대인평가의 특성은 사회적·정적 특성과 지적 특성으로 나뉘어지며, 이들은 각각 대상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의 인상평가의 단서로 작용한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대인평가는 지각자와 지각대상인물이 처해 있는 두가지 의존상황의 유형에 따라 인상판단의 목표, 기준, 단서 특성 및 인상평가의 차원이 서로 다른 이원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의 골자이다.

여기서 효과의존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직접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다른 사람은 욕구충족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Jones & Gerard, 1967, p.711). 이러한 효과의존의 상황에서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은 개인에게 결과통제(outcome control)를 행사한다. 결과통제란 “타인의 행동을 조성 또는 지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회수하는”(Jones & Gerard, 1967, p.529)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통제는 “명백히 행동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며”(Jones & Gerard, 1967, p.522),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결과통제를 받게 되면 그는 상대방의 행동에 의존하여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통제를 행사하는 타인에 대한 판단은 그가 다른 사람이 바라는 효과를 제공하려는 성향 또는 의도를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이 분명해진다. 즉,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은 직접적인 결과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은 자기의 직접적인 욕구의 충족에 목적이 있으므로(대인평가의 목표), 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초점으로 부각되어 그의 친절성·온화성·포용성 등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정적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대인평가의 단서 특성). 그런데 개인의 생활사에서 다양한 욕구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욕구가 타인에 의해 충족 또는 배척되어진 경험은 개인에 따라 상이할 것이고, 또한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의도와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대인평가의 기준). 이

러한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의 영향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의미에서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개인의 그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주관적인 행동정향을 판단하는 것이 인상평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므로, 대상인물을 주관적으로 좋아할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 또는 그와 앞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아닌지 하는 행동정향을 판단하는 화친차원(和親次元, likability)에서 인상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대인평가의 차원).

반면에 정보의존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대한 정보와 그 의미 및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Jones & Gerard, 1967, p.714). 이때 다른 사람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존의 상황에서 정보원으로서의 타인은 개인에게 단서통제(cue control)를 행사한다. 단서통제란 “개인에게 이미 형성된 환경-행동 연결망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공”(Jones & Gerard, 1967, p.529)하므로써, 이를 통해 개인의 환경단서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단서통제를 받게 되면 그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원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판단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 즉, 정보원으로서의 타인은 정보의 단서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개인의 환경 내에서의 행동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가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려 하게 된다(대인평가의 목표).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어 지능·전문성·결단력 등과 같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적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대인평가의 단서 특성). 그런데 타인의 지능이나 전문성, 결단력 등의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적 활동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또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환경세계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정보원으로서의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대인평가의 기준). 따라서 이때는 대상인물의 성취도나 업적 또는 그의 전반적인 전문성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가 얼마나 홀

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선호차원²⁾(善好次元, favorability)에서 인상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대인평가의 차원).

이러한 이원모형은 두 의존상황 또는 인상평가차원에서 탐색되거나 기억되는 정보 특성의 차이를 밝히거나 인상통합이 이루어지는 양상의 차이를 밝히는 여러 실험 연구들을 통해 그 적합성이 검증되고 있다(조금호, 1988, 1990a 참조).

두 모형의 비교 이러한 두가지 모형은 모두 자극 정보의 특성(지각대상인물의 소여특성과 대인평가의 두가지 단서 특성)과 지각자의 내적 요인(지각적 조율과 의존상황에 따른 대인평가의 목표)의 공변관계를 강조하는 상호작용모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모형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한가지 있다.

이는 생태학적 모형은 환경 자극이 갖는 소여특성을 강조하므로써 개인과 문화권에 따라 똑같은 자극 정보가 갖는 소여특성의 차이를 밝혀내려는 구조주의적 입장이 비교적 강한데(Fiske & Taylor, 1991) 비하여, 이원모형은 의존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목표에 따른 대인평가의 제반 차이를 밝혀내려는 구성주의적 입장이 비교적 강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자는 지각적 조율의 명제를 통해 구성주의적 입장을 포용하고, 후자는 대상인물이 갖는 단서 특성에 대한 전제를 통해 구조주의적 입장을 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이 두 모형에 기초한 연구들의 명백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다. 즉, 전자는 대인평가 내용의 문화차와 개인차의 자료 수집에 몰두하는 반면, 후자는 의존상황과 대인평가차원의 함수로서 탐색되는 단서 특성의 차이의 확인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강조점의 차이로 인해 전자는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와 개인차의 현상적 기술에는 능하지만 각 문화권에서 또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대인평가의 제반 차이를 예측하는 데는 약하며, 반대로 후자는 의존상황에 따른 대인평가의 제반 차이의 예측에는 강하나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나 개인차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모형은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원모형을 통해 대인평가의

2) 여기서 善好의 善은 ‘착하다’의 뜻이 아니라 ‘좋다’ ‘잘한다’의 뜻이며, 好는 ‘좋아한다’의 뜻이 아니라 ‘좋다’ ‘훌륭하다’의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1990, p.93)를 참조할 것.

문화간 차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형 속에 생태학적 모형의 특징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형과 대인평가의 차이

문화란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자명성(Selbstverständlichkeit)의 집합체로서 한 사회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조망이며, 사회 행위의 지도원리이다(Hofstätter, 1966). 즉, 문화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세계에 대한 “간주관적인 의미 체계”(Miller, 1984, p.973)이기 때문에 환경세계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주도하고(Markus & Kitayama, 1991), 더 나아가 환경 속에서의 개인적 발달의 방향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Shweder, 1990) 때로는 “역사의 근본적인 추진력”(Ross & Nisbett, 1991, p. 177)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인간은 이러한 문화구속성

3) 이러한 문화분류체계로는 교환관계에서의 강조점에 따라 문화유형을 분류한 Toennies(1957)의 공동사회-이익사회(Gemeinschaft-Gesellschaft), Goffman(1961)의 사회적 교환관계-경제적 교환관계(social exchange relationship-economic exchange relationship), Maine(1963)의 지위관계-계약관계(status relationship-contract relationship), Ziller(1965)의 폐쇄집단-개방집단(closed group-open group) 및 Clark와 Mills(1979; Mills & Clark, 1982)의 공유관계-교환 관계(communal relationship-exchange relationship)의 체계,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지향성에 따라 분류한 Kluckhohn과 Strodtbeck(1961)의 부수성-개체성(collaterality-individuality), Yang(1981)의 사회적 지향-개인적 지향(social orientation-individual orientation), 장성수·이수원·정진곤(1990)의 인정조망-공정조망 및 이현달(1992)의 관계조망-공정조망의 체계, 도덕성과 가치내면화에 따라 분류한 Benedict(1947)의 수치심문화-죄의식문화(shame culture-guilt culture) 및 Wilson(1974)의 자동성-타동성(autocentrism-heterocentrism)의 체계 등의 분류체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이러한 대응쌍 중 전자는 집단주의의 특징을, 그리고 후자는 개인주의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Chung(1990)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보편아 중심문화(universal I-ness culture), 신중심문화(God culture), 과학중심문화(science culture)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처음 것은 집단주의, 후자의 두가지는 개인주의의 특징을 내포하는 것이며, Fiske(1990)는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른 공유관계(communal sharing), 서열관계(authority ranking), 시장적 거래관계(market pricing), 대등관계(equality matching)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처음 두가지는 집단주의, 나중 두가지는 개인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Gergen, 1973, 1985; Shweder, 1990; Shweder & Miller, 1985)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행동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띤 수 밖에 없고, 문화는 이러한 사회적 의미의 궁극적 규정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대로 문화와 분리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의 추구는 허상에 불과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행위에 있어서 개인차를 빚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보다는 집단차를 빚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론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Pepitone & Triandis, 1987, p.495)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이 문화의 개념을 그들의 이론적 개념틀 속에 포함시켜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Doob, 1980). 이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내용 규정의 애매성과 문화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차원 설정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르는 방법론적인 곤란성(Bond & Hwang, 1986; Hui, 1988;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0 등)들이 그 까닭이 있었다. 그 결과 문화간 차이를 조감하는 다양한 체계가 제시되어 왔는데³⁾,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Hofstede(1980)의 66개 국가에 걸친 광범위한 비교 연구 이후 Triandis(1988, 1989, 1990)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집단주의-개인주의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의 분류체계⁴⁾이다.

4) 여기서 한가지 중요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차원이 문화간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에 의해 문화간의 차이를 모두 드러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즉, 같은 집단주의의 또는 개인주의의 문화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하위문화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문화권 내의 개인들 간에도 이 두가지 경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Triandis, 1990 등). 그리하여 Triandis(1989)는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차원 이외에 복잡성(complexity)과 치밀성(tightness)을 문화분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Hofstede(1980)도 권력 거리(power distance), 애매성 회피(ambiguity avoidance), 남성성(masculinity)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Triandis(1990)는 집단주의를 가족중심주의-공동체적 집단주의(familism-communitarian collectivism)로, 개인주의를 자기애적 개인주의-공동체적 개인주의(narcissistic individualism-communitarian individualism)로 분류하고 있으며, Triandis, Leung, Villareal과 Clark(1985)는 문화수준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와는 별도로 개인수준에서의 타인중심성-개인중심성(allocentrism-ideocentrism)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1.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의 인간관

한 사회를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들은 그 내용적 유사성에 따라 다음 몇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교환자원, 목표 및 교환에 관한 시간전망 등 교환의 양식의 기준이다(예: Clark & Mills, 1979; Fiske, 1990; Goffman, 1961; Maine, 1963; Mills & Clark, 1982; Toennies, 1957 등). 비록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분류⁵⁾에서 장기적 시간전망을 가지고 비등가적인 가치의 자원을 상대방과의 조화추구 또는 상대방의 복지에서의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교환하는 관계는 집단주의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단기적 시간전망에서 등가적인 경제적 가치의 자원을 공정관계 형성 또는 자기이익 추구라는 관심과 합의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교환하는 관계는 개인주의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Triandis, 1990).

둘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 정도의 기준이다(예: Hofstede, 1980, 1983; Hsu, 1971; Schwartz, 1986 등).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을 타인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생활에서의 타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을 자율적·독립적이며 상황과의 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점은 "이 차원(개인주의-집단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사회가 옹호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정도이다. 이는 사람들이 '나'(I)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We)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Hofstede, 1983, p. 83)는 기술에서 잘 드러나 있다.

셋째는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의 기준이다(예: Hui & Triandis, 1986; Triandis, 1988, 1989,

1990; Triandis 등, 1985, 1988; Yang, 1981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복속시키며,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 강한 내집단 정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Triandis 등, 1985) 내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내집단 규범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지각하며, 내집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다(Triandis, 1989, 1990; Triandis 등, 1988). 반면에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목표추구가 집단에 해가 되더라도 집단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자기를 집단과는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는 관심이 없으며,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는다(Triandis, 1989, 1990; Triandis 등, 1985, 1988).

넷째는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의 기준이다(예: Bond & Hwang, 1986; Chung, 1990; Hui & Triandis, 1986; Markus & Kitayama, 1991;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등).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이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는 각자가 이러한 관계에 내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본다(Bond & Hwang, 1986; 정양은, 1988; 조금호, 1990b, 1991).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궁극적인 존재론적 단위는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보며, 사회는 이러한 개별적 개체들의 복수적인 집합에 불과하다고 본다(정양은, 1988; Chung, 1990). 이렇게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개인간의 관계를 사회제도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상호의존성을 사회행위의 규범적 단위로 보게 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상황이나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을 사회제도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사회적(asocial)인 개인을 사회행위의 규범적 단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이러한 여러 기준들은 각각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를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집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의 정도 및 개인 사이의 교환의 양상 등

5) 이러한 분류로는 주 3을 참조할 것. 이들의 분류에서 공동사회(Toennies, 1957), 사회적 교환관계(Goffman, 1961), 지위관계(Mainie, 1963), 공유관계(Clark 등, 1979; Mills 등, 1982)의 특징은 Triandis(1990)가 요약해 내고 있는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교환의 특징과 일치하고, 이들에 대응되는 이익사회, 경제적 교환관계, 계약관계, 교환관계의 특징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교환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개인주의 구분의 기본적 출발점은 바로 기본적 사회단위의 인식차(Hui & Triandis, 1986)라는 전체에서 자기를 집단의 일부로서 파악하느냐 아니면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서 파악하느냐 하는 점을 기초로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차이를 정리(Triandis 등, 1988)해 낼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에 대한 인식차는 필연적으로 두 문화에서의 인간 일반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사회관계 및 그러한 관계 속의 역할이라고 보는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Dumont, 1965;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등),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Markus & Kitayama, 1991) 또는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을 갖게 되지만(Triandis, 1990; Weldon, 1984), 개인적 원망과 선호를 추구하는 자기분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보는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상황유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Sampson, 1977, 1989 등),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 Markus & Kitayama, 1991) 또는 사적 자기(private self;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을 갖게 되는 것이다⁶⁾.

이러한 두가지 인간관은 사회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표현의 양식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조망을 받게 된다. 즉,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므로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타인에의 관심 및 배려에서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 속의 조화의 추구가 사회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반면에 개인 중심적 인간관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에게서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찾게 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의 추구가 사회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그리하여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게 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자기를 억제하여 양보하고 협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개인간의 경쟁과 공정한 교환을 강조한다. 또한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요소로서의 관계의 안정에 근거한다고 보게 되고, 결국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따른 역할의 변이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에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체하므로써, 행위의 상황에 따른 변이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요소로서의 개인의 안정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게 되고, 따라서 각 개인은 지속적이고 일관되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 상황과 관계에 따른 변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변이 또는 비일관성은 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는 결국 사회제도와 행위규범의 근본적인 차이를 빚게 되어(Shweder & Miller, 1985) 문화권에 따른 인지·정서·동기의 제반 활동에서의 차이(Markus &

6)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기에 대한 해석 양식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상호의존적 자기와 상황과는 분리된 개별적 단위로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독립적 자기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전자는 집단주의사회에서, 그리고 후자는 개인주의사회에서 각각 자기를 파악하는 기본 양식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Greenwald와 Pratkanis(1984)는 자기개념은 스스로가 보는 자신의 독특한 특성·상태·행동의 인식에 근거한 사적 자기, 일반적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견해의 인식에 근거한 공적 자기(public self) 및 특정 내집단 성원들이 보는 나에 대한 견해의 인식에 근거한 집단적 자기의 세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Triandis(1989)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 중에서 집단적 자기개념이 우세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사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Tajfel(1981)은 사회정체감이론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의 특성이나 능력에 기초한 개인적 정체감과 집단과의 동일시에서 느끼는 사회적 정체감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Weldon(1984)과 Triandis(1990)는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정으로 등장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정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Kitayama, 1991)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2. 두 문화권에서의 대인평가의 차이

문화권에 따른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에 의해 타인에게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이 다르게 되고, 지각자는 이러한 특성에 지각적으로 조율되어 결과적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소여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발되므로써 (McArthur & Baron, 1983; Zebrowitz, 1990) 대인평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두 문화권에서의 대인지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집단주의자들은 상황이나 관계맥락적으로 사람을 지각하고, 개인주의자들은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지각한다는 사실이다⁷⁾. 이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인에 대한 기술에서나 (Korten, 1974; Miller, 1987; Shweder & Bourne, 1984; Zebrowitz, 1990 등) 타인의 행동 원인에 대한 추론에서나 (Hamilton & Sanders, 1983; Miller, 1984, 1986, 1991; Miller 등, 1989, 1990, 1992 등) 또는 자기에 관한 기술에서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등)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주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근본적 귀인 오류 (Ross, 1977)가 집단주의자들에게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 (Cha & Nam, 1985; Hamilton & Sanders, 1983; Miller, 1984; Markus & Kitayama, 1991; Zebrowitz, 1990 등)에서도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문화권에서의 추론양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과 연결성 확립이 분석의 목표인 설화적 (narrative) 사고양식이 두드러지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추상화와 공통양상 분석이 목표인 범례적 (paradigmatic) 사고양식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Bruner, 1986).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과 관계에 의해 사물을 분류하는 종합적 (synthetic) 사고가 인식의 주요 양식이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자극의 요소를 분석해서 공통적인 측면을 추론하여 분류하는 분석적 (analytic) 사고가 인식의 주요 양식인 것이다 (Yang, 1986). 이러한 사고양식의 차이는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자들에게서 상황적·관계적 지각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서 이들의 추상화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인 몇 개의 행동으로 대상인물을 기술해 주고 그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성향을 추론하게 하면, 인도인 피험자들도 미국인 피험자들과 같은 수준의 성향추론을 해낸다는 사실 (Miller, 1987)과 성격특성어들 간의 유사성차원 분석에서 중국인·필리핀인·일본인 피험자들도 미국인 피험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 (Bond, 1979) 등에서 드러난다. 또한 Cousins (1989)는 미국과 일본인 피험자들에게 전형적인 자기기술검사 Twenty Statement Test; Kuhn & McPartland, 1954)를 실시하면 미국인 피험자들의 성향기술 비율(약 60%)이 일본인 피험자들의 그것(약 20%)보다 높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기술을 하도록 한 수정판검사⁸⁾를 실시하면 일본인 피험자들의 성향기술 비율(약 40%)이 미국인 피험자들의 그것(약 25%)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자들이 성향추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본적으로 상황 또는 관계맥락적으로 자기와 타인을 지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Peever와 Secord (1973)가 분류한 특성차원 중에서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깊이 (depth) 차원에서 사람을 지각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기술 (descriptiveness) 차원에서 사람을 지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⁹⁾.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에

8) Kuhn과 McPartland (1954)의 자기기술검사는 "나는 ..."이라는 문항을 20개 제시하고 자기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자유기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수정판검사는 "집에서의 나는 ..." "친구들과의 나는..." "학교에서의 나는..." 등 상황 속에서의 자기에 대해 자유기술토록 한 것이다.

9) 여기서 깊이차원은 행동을 상황·시간에 조건적으로 인지하는 정도이며, 기술차원은 구체적 행동을 추상적·일반적인 성향의 반영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Zebrowitz (1990)는 대인기술 장면에서 개인주의자들은 기술차원이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보이지만, 집단주의자들은 깊이차원이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7) Ross와 Nisbett (1991)은 개인주의사회에서 이렇게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경향은 역사적·철학적 배경이 깊어서, Mischel (1968)에 의해 개인의 지각된 성향과 실제 행동과의 상관성이 기껏해야 .30을 넘지 않아 그 경험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Lewin 이후 사회심리학에서 행동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 개인적 요인의 영향보다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념체계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성향주의 (dispositionism)라 부르고 있다.

서의 추상화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두 문화에서 요구되는 적응가치의 반영일 뿐인 것이다(Zebrowitz, 1990). 즉, 집단주의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이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간주하므로 상황범주에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깊이차원에서 정교화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주의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이 행위자의 성향에 따라 변화한다고 간주하므로 성향범주에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기술차원에서 정교화가 이루어진 결과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대인지각의 일반적인 차이가 두 문화에서 요구되는 적응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대인평가의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강조하는 특성이 달라질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차이는 전술한 바대로 두 문화권의 지배적인 인간관에 따른 사회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표현의 양식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조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존성강조 : 자율성강조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인 조화성중시 : 독특성중시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의무를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게 되므로써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및 조화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중심적 인간관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욕구, 목표, 원망 등)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게 되므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추론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개념을 갖게 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의 개념을 갖게 된다는 사실(Markus & Kitayama, 1991),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도덕 판단의 근거를 사회관계에서의 타인에의 의존성에서 찾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자율적 개인의 권리에서 찾는다는 사실(Miller, 1984, 1986, 1991; Miller 등, 1989, 1990, 1992) 및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집단적 자기가 규범적인 자기개념이 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사적 자기가 규범적인 자기개

념이 된다는 사실(Triandis, 1989, 1990)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두 문화권의 사람들이 중시하고 추구하는 특성의 차이를 낳게 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에의 동조에 가치를 두게 되고(Bond & Hwang, 1986; Chung, 1990), 따라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단결심과 겸양 및 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그 결과 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어¹⁰⁾(Bontempo, Lobei, & Triandis, 1990) 공적 자기(일반적 타인의 '나'에 대한 견해의 인식)는 집단적 자기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립성(self-reliance)에 가치를 두게 되고, 따라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그 결과 공적 자기는 사적

10) Bond와 Hwang(1986)은 동조행동에 관한 문화간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집단성원과의 조화를 중시하므로 공개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이 대립할 때 개인적 신념을 포기하고 공개적 신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따라서 동조행동이 많아지므로 공개적인 의견이나 태도는 진실한 내면적인 의견이나 태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괴리가설의 전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내면화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개인 존재는 집단 속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므로써 집단규범을 개인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되고, 따라서 공개적인 의견이나 태도는 바로 개인에게 내면화된 가치의 반영이므로 진실한 내면적인 의견이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Bontempo, Lobei와 Triandis(1990)에 의해 직접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브라질(집단주의문화)과 미국(개인주의문화)의 피험자들에게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내집단의 규범이 요구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하겠는지(당위성)와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즐겁겠는지(유희도)의 두 차원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응답은 공개조건과 익명조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브라질 피험자들의 반응은 공개조건과 익명조건에 차이없이 당위성과 유희도에서 모두 높았음에 비해, 미국의 피험자들은 공개조건에서는 당위성과 유희도를 모두 높게 평정했으나 익명조건에서는 모두 낮게 평정하여 두 조건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브라질인들은 내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가거이 따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내면화가설을 직접 지지해 주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들의 경우 내집단 성원에 대한 동조량은 미국인보다 크지만, 낯선 사람들에 대한 동조량은 미국인보다 작다는 결과(Frager, 1970; Matsuda, 1985 등)에 의해서도 거듭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Triandis, 1989).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의 학습(집단 내에서 의 위치 확인 및 내집단과의 동일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정이 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의 학습(능력 확인 및 독특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개인적인 소유(능력, 경험, 업적 등)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Triandis, 1990; Weldon, 1984).

이렇게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조화성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독특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은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평가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허구적 독특성(false uniqueness) 지각 경향에 관한 연구(Markus & Kitayama, 1992; Myers, 1987), 미국인들은 자기가 타인에게 유사한 것보다는 타인이 자기에게 더욱 유사하다고 판단하지만, 일본인들은 타인이 자기에게 유사한 것보다는 자기가 타인에게 더욱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에 관한 연구(Kitayama, Markus, Tummale, Kurokawa, & Kato, 1990; Markus & Kitayama, 1991, pp.231-232에서 재인용), 개인주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집단 이질성 - 외집단 동질성 지각 경향(Quattrone, 1986 등)이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내집단 동질성 - 외집단 이질성 지각의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연구(Triandis, McCusker, & Hui, 1990) 및 개인주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귀인의 자기고양편향(self-serving bias: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귀인,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귀인하고, 경쟁상대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귀인, 실패에 대해서는 내부귀인하는 경향)이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겸양편향(modesty bias: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운, 실패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노력부족에 귀인)이나 타인고양편향(other-serving bias: 경쟁상대자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과 노력, 실패에 대해서는 운에 귀인)이 나타난다는 연구(Bond & Hwang, 1986; Takata, 1987; Yamauchi, 1988; Yoshida, Kojo, & Kaku, 1982)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¹¹⁾.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타인을 참조로 하

는 연관성과 상호의존성 실현의 동기가 우세하게 되어(Bond & Hwang, 1986; Markus & Kitayama, 1991; 조근호, 1990b) 결과적으로 자기를 타인과 유사하게 지각하고 또 사회관계에서 겸양과 조화를 추구하게 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자기를 참조로 하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동기가 우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고 또 사회관계에서 자기존대를 추구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 문화권에 따른 조화추구와 독특성추구 경향은 대인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타인을 평가하는 성격특성체계(implicit personality theory)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게서 찾아진 외향성(extro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신뢰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세련성(culture) 등 대인평가의 5대차원¹²⁾(Norman, 1963) 가운데 중국인들에게는 호감성과 신뢰성이 사회적 도덕성(moral reality)차원으로 통합되고, 또 이 차원이 가장 핵심차원임이 밝혀지므로써(Lew, 1983; Yang & Bond, 1985) 집단주의자들은 이 차원을 중심으로 타인을 평가함이 드러나고 있다. Bond와 Forgas(1984)는 이러한 성격특성차원과 대인행동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인들은 호감성을 상호작용 용이성의 지표로 받아들여 이를 친밀 관계 형성의 기준으로 삼고, 신뢰성을 타인에

11) Yoshida, Kozo와 Kaku, 1982; Markus & Kitayama, 1991, pp.242-243에서 재인용)는 일본 학생들은 이러한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이 자기고양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보다 성격특성도 더 좋고, 또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므로써, 겸양의 특성이 조화를 추구하는 집단주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12) 각 차원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외향성: 말이 많다(talkative) · 솔직하다(frunk) · 모험적이다(adventurous) · 사교적이다(sociable)
 호감성: 선량하다(good-natured) · 샘이없다(not jealous) · 온화하다(mild) · 협동적이다(cooperative)
 신뢰성: 단정하다(tidy) · 믿음직하다(responsible) · 건실하다(scrupulous) · 참을성 있다(persevering)
 정서적 안정성: 침착하다(poised) · 냉정하다(calm) · 안정되다(composed) · 대범하다(not hypochondrical)
 세련성: 예술적이다(artistically sensitive) · 지적이다(intellectual) · 세련되다(polished) · 상상력이 풍부하다(imaginative)

대한 배려의 지표로 받아들여 이를 의존관계형성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호주인(개인주의자)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의존관계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대인평가에서 호감성과 신뢰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이보다는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에게 친한 친구의 성격특성을 기술하게 한 연구들에서 중국의 학생들은 친절함·타인에의 배려·상냥함·겸손함·이타적임·정직함·노력형임·관대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Chang, 1983; Chien, 1977), 미국 학생들은 유쾌함·열성적임·인기있음·친절함·사교적임·지도력있음·농담을 잘함·잘생김 등을 제시하고 있다(Kuhlen & Lee, 1943)는 점에서도 거듭 드러나고 있다. 매력적인 성격특성에 관한 이러한 문화간 차이는 두 문화에서의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의 역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Stover, 1974).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대인관계의 조화로운 유지와 위계적 사회상황에서의 위치에 적합하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의 주요 관심은 농담, 주도성 및 자기의 능력과 기술의 표현을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쏠리게 되는 것이다"(Bond & Hwang, 1986, p.243).

자기억제강조: 자기 주장 강조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양보·협동중시: 적극성·경쟁중시** 개인적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집단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를 집단목표에 복속시켜 개인적인 원망이나 욕구를 억제할 것을 강조하게 되며, 그 결과 양보와 협동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아 개인목표를 집단목표에 우선시킨다. 따라서 자기주장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극성과 솔직성 및 공정한 경쟁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문화권에 따른 이러한 자기표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사회화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사회화과정에서 충동의 억제와 집단지향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기 주장을 적극 권장한다

(Triandis, 1990). Markus와 Kitayama(1991)에 의하면,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로부터 통제의 의미와 자존심의 근거에 대한 문화간 차이가 유발된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자기억제와 대인상황에 맞게 자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주도성(agency)을 강조하므로 통제란 결국 내적 욕구나 개인적 목표 및 사적 감정 등 내적 특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자기통제와 상황적 응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조화의 유지가 자존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내적 속성의 주장과 성취를 강조하므로 통제란 결과적으로 사회상황이나 외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독특성과 수월성이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표현규칙(display rule)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동정 공감같은 타인 중심적 정서(other-focused emotion)의 표현은 권장하지만, 자부심이나 분노같은 자기중심적 정서(ego-focused emotion)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정서표현은 솔직성과 진실성의 반영이라고 보아, 분노와 자부심 등도 거리낌없이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Markus & Kitayama, 1991). 두 문화권에서의 이러한 자기표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의사 소통양식의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Barnlund(1975)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표현의 보류·공식성·침묵·신중함·우회적 표현 등을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인들은 자기주장·솔직성·비공식성·자발성·다변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자기노출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자기노출을 권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표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두 문화권에서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는 특성의 차이를 유발한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양보와 협동을 추구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독특성과 수월성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성과 경쟁¹³⁾을 추구하고 되는 것이다.

13) Triandis 등(198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주의성향의 요인분석적 연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의 제 1요인은 전체 변량의 35.2%를 차지하는 "경쟁을 동반하는 자립"(self-reliance with competition)임을 밝혀, 경쟁이 개인주의성향을 구성하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갈등 장면에서 양보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좋아하며, 갈등에 직면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이에 직면하여 경쟁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를 좋아한다는 연구(Triandis, 1989, 1990)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Bond와 Hwang (1986)은 중국인들의 체면관련행동(face behavior)은 자기체면고양·타인체면고양·자기체면상실·타인체면손상·자기체면유지·타인체면유지의 6가지 유형으로 자기의 체면뿐만 아니라 타인체면의 유지와 고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반해, 개인주의사회에서 제시된 자기체면이론들¹⁴⁾은 모두 자기체면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양보와 협동을 통한 조화의 유지가 기본이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한 자기이익 추구가 기본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원분배의 장면에서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양보와 협동 및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를 전제로 하는 균등규범(equality norm)이나 필요규범(need norm)에 따른 분배를 선호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경쟁과 공정한 계산을 전제로 하는 형평규범(equity norm)에 따른 분배를 선호한다는 결과(Triandis, 1990; Triandis 등, 1985; 장성수 등, 1990 등)에서도 두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특성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변성 강조 : 안정성 강조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을 다 노력 중시 : 능력 중시 양한 상황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상황과 관계에 따른 행위의 가변성을 인정하고 강조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에 맞추어 적합성을 유지하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향이 사회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황과 관계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정된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특히

14) 이러한 이론들은 Goffman(1955)의 연출이론(dramaturgical theory of self-presentation), Alexander 등(Alexander & Knight, 1971; Alexander & Lauderdale, 1977)의 상황적 정체감이론(theory of situated identity) 및 Jones(1990)의 전략적 자기제시이론(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등이 있다.

이렇게 각각 가변적인 노력과 안정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성취관련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개인주의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일관성추구의 동기(consistency-seeking motive)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즉, 집단주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과 관계에 내재한 역할, 지위 및 책임이고, 개인의 행위는 이러한 역할, 지위 및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적 특성과 행위의 불일치는 문제되지 않고, 따라서 일관성추구의 동기가 작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된 내적 속성이고,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내적 속성의 발현이므로 내적 속성과 행위의 불일치 또는 상황간 행위의 불일치는 개인의 정체감에 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관성추구의 동기가 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이 둘이 일치한다는 결과들(Iwao, 1988; Triandis, 1989, 1990)에서 입증되고 있다¹⁵⁾. 또한 집단주의사회에서는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여러가지 행동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들(Gudykunst, Yoon, & Nishida, 1987; Triandis, 1990 등)도 집단주의사회에서 일관성추구의 동기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권에 따른 행위가변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가변

15) 이 중에서 Iwao(1988; Triandis, 1989, p.514에서 재인용)의 연구는 특히 흥미를 끈다. 그녀는 일본인과 미국인 피험자들에게 여러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몇가지 가능한 행위를 제시해 주고, 이 가운데서 최선의 반응과 최악의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자기 딸이 타이중의 남자를 결혼상대자로 데리고 왔을 때"와 같은 상황에 대해 "속으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결혼을 찬성하겠다고 말한다"와 같은 선택지를 제시해 주었다. 그 결과 이 행위를 최선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일본에서는 44%, 미국에서는 2%였고, 최악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일본에서는 7%였고 미국에서는 48%였다. 이는 일본인들은 내적 의견(사적 자기의 내용)과 공개적 행동(공적 자기의 표출)의 불일치를 미국인들과는 달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적인 특성인 노력을 중시하게 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비교적 고정된 특성인 능력을 중시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학업성취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 성공이나 실패를 모두 노력에 귀인하지만(각각 열성적 노력과 노력 부족), 개인주의사회에서는 학업성취를 선천적인 능력에 귀인한다(각각 탁월한 능력과 능력 부족)는 연구 결과들(Mizoka & Ryckman, 1990; Stevenson, Lee, & Stigler, 1986; Stevenson & Stigler, 1992)에서 입증되고 있다. 집단주의사회에서 이렇게 성취를 노력귀인하는 경향은 적응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즉, 노력은 가변적이고 통제가능한 요인(Weiner, 1979)으로서 성취 결과를 이에 귀인하게 되면, 실패를 했을 때 더욱 분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지속적인 실패를 피할 수 있지만, 비교적 고정적이고 통제불가능한 능력(Weiner, 1979)에 귀인하게 되면, 실패를 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Mizoka & Ryckman, 1990). Stevenson과 Stigler(1992)는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중국과 일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주의사회에서 노력보다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대인평가에서 미국인들은 능력과 지식을 매우 강조한다는 결과(Korten, 1974)나 미국인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성격 특성을 기술케 한 연구에서 빈도 10이상인 특성 110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특성 3개는 '지적이다', '친절하다', '노력형이다'로 각각 빈도가 143, 80, 54인데, 이 가운데 2개(지적이다·노력형이다)가 과제수행과 관련된 특성이지만, 그 중에서 '지적이다'의 빈도는 '노력형이다'의 빈도보다 3배 가까이 된다는 결과(Rosenberg & Sedlak, 1972)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집단주의사회와는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하는 능력확인과 독특성의 추구가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결과 개인적 소유(능력이나 업적 등)에 의해 정체감이 규정된다는 사실(Triandis, 1990)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이상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자기억제·행위가 변성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내집단내의 동조·단결심·겸양·호감성(선량함·온화함 등)·신뢰성(믿음직함·건실함·참을성있음 등)·양보·협동·신중함·과묵함·노력 등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반면,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자율성·자기주장·안정성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수월성·전문성·외향성(다변 솔직함·모험적임·사교적임 등)·정서적 안정성(침착함·냉정함 등)·주도성·적극성·경쟁·자발성·유능함·세련됨·창의성 등의 특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대인지각의 생태학적 모형(McArthur & Baron, 1983)에 따르면, 두 문화권에서의 대인평가는 상대방의 이러한 서로 다른 소여특성에 지각적 조율이 이루어져 민감하게 되고, 그 결과 이러한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필자(1982, 1990a)의 이원모형에서 예측하는 대로 대인평가의 기준과 차원이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의 이원모형을 이러한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장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해 보기로 하겠다.

모형의 확대 필자의 대인평가 이원모형은 전술한 바대로 상호작용상황과 대인평가의 관계에 대한 제 1전제, 상호작용상황의 이원성에 관한 제 2전제, 그리고 대인평가특성의 이원성에 관한 제 3전제를 기초로 하여 정립된 것이다(조궁호, 1990a). 이러한 전제 위에서 대인평가는 지각자와 지각대상인물이 처해 있는 의존상황의 유형(효과의존상황과 정보의존상황)에 따라 인상판단의 목표(효과원으로서의 가치 판단과 정보원으로서의 가치 판단), 기준(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 단서 특성(사회적·정적 특성과 지적 특성) 및 인상평가의 차원(화친차원과 선호차원)이 서로 다른 이원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이 모형의 골자이다. 즉, 이 모형에서는 대인평가는 의존상황과 대상인물의 상호작용의 함수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대인평가 = f (의존상황 + 대상인물)¹⁶⁾ …… 원모형

이러한 이원모형의 내용은 두가지 가설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월성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교화 가설이다. 여기서 우월성가설은 의존상황에 따른 인상 판단 목표와 대상인물의 특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의존상황에 따른 인상판단 목표에 적절한 특성(우월특성)이 인상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탐색된다는 것이다. 즉, 효과의존상황에서 화친차원의 인상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대상인물의 사회적·정적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탐색되지만, 정보의존상황에서 선호차원의 인상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지적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탐색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교화가설은 의존상황에 따라 부각되는 특성의 우월성과 인상평가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월특성을 통한 인상평가는 부차특성(인상평가 과정에서 탐색되지 않는 특성으로, 효과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 정보의존 상황에서는 사회적·정적 특성)을 통한 인상평가보다 더 정교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교화란 인상평가의 극단성이 높아지고, 우월특성에 대한 기억량이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즉, 효과의존상황에서 화친차원의 인상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정적 특성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지적 특성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더 극단적이고, 또한 사회적·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량이 지적 특성에 대한 기억량보다 많지만, 정보의존상황에서 선호차원의 인상평가를 할 때는 지적 특성 인물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정적 특성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더 극단적이고, 또한 지적 특성에 대한 기억량이 사회적·정적 특성에 대한 기억량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가설 중에서 우월성가설이 선행되는 가설이고, 정교화가설은 부차적인 가설이라 볼 수 있다. 평가의 정교화는 우월특성을 기초로 한 인상평가가 아니라 부차특성을 기초로 한 인상평가가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의 이원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들에서 정교화가설은 우월성가설 속에 암묵적으로 내포되고 있었을 뿐이었다(조공호, 1988, 1990a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우월성가설은 인상평가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인상평가의 단서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고, 정교화가설은 이러한 우월특성과 부차특성에 대한 인상평가의 결과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이어서, 비록 깊이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상이하므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원모형은 이 두가지 가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모형을 통해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를 조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간 차이의 내용이 이 두가지 가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절에서는 집단주의사회와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인간관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기대하고 강조하는 특성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원모형의 우월성가설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서로 다른 문화적 조망이 대인평가 과정에서 탐색되는 우월특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적 조망에 따라 탐색되는 우월특성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월특성의 인물과 부차특성의 인물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유발될 것임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력에 관한 문화 비교 연구에서 집단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과제의 특성이나 응답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과제지향적 지도자(task-oriented leader) 보다는 사회정서적 지도자(socio-emotional leader)를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또 더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ond & Hwang, 1986; Misumi, 1985)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도력은 지도자특성, 근로자특성 및 과제특성의 상호작용의 함수라고 보는 Fiedler(1978)의 유관이론(contingency theory)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이원모형의 정교화가설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집단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문화적 조망에서 강조하는 우월특성을 가진 사회정서적 지도자를 부차특성을 가진 과제지향적 지도자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이원모형은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현상의 이해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을

16) 여기서 --부호는 영향이 덧붙여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 요인이 상호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두 요인이 대인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또 X부호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A×B로 되어 있을 경우, 이는 뒤의 요인 B는 앞의 요인 A에 의해 규정되고 한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A×B)-C로 되어 있을 경우, 이는 B의 내용이 A에 의해 한정되고, 이것이 다시 C와 상호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인물에게서 탐색되는 우월특성이 지각자의 대상인물에 대한 의존상황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각자가 속해 있는(또는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조망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이원모형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에 제시된 원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text{대인평가} = f\{\text{문화적 조망} | (\text{의존상황} + \text{대상인물}) \} \dots\dots\dots \text{수정모형}$$

이 모형은 의존상황과 대상인물의 상호작용은 문화적 조망에 따라 한정되고 규정됨을 나타낸다. 여기서 문화적 조망이 의존상황의 목표를 한정하고 규정하느냐 아니면 대상인물의 특성을 한정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 수정모형은 다른 형태를 띄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월성가설과 정교화가설의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시안 1 : 규범적 영향 모형 이는 문화적 조망이 의존상황의 목표를 규정하고 한정짓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text{대인평가} = f\{(\text{문화적 조망} \times \text{의존상황}) + \text{대상인물}\} \dots\dots\dots \text{규범모형}$$

이 모형에서는 문화적 조망에 따라 한정되고 규정된 의존상황과 대상인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대인평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모형은 문화적 조망이 대인평가의 의존상황을 한정하여 결과적으로 대인평가의 목표를 규정하므로써, 대인 평가의 전체 과정에서 규범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우월성가설은 상황-우월성가설과 특성-우월성가설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상황-우월성가설은 문화적 조망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의존상황이 우월상황과 부차상황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즉, 집단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효과원으로서의 타인에의 의존이 중요하게 되어 효과의존상황이 우월상황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개인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정보원으로서의 타인에의 의존이 중요하게 되어 정보의존상황이 우월상황으로 등장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상호관계 속의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강조하므로 효과의존상황이 두드러지게 되고,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기대할 수 없고, 타인은 단지 나에 대한 반향적 평가(reflected appraisal)의 도구로서만 중요하므로(Markus & Kitayama, 1991) 정보의존상황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적 조망에 의해 상황우월성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상평가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집단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효과의존상황이 우월 상황이 되므로 이 상황에서의 인상평가차원인 화친 차원에서 인상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정보의존상황이 우월상황이 되므로 이 상황에서의 인상평가차원인 선호차원에서 인상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집단주의 문화의 조망에서는 화친차원 인상평가의 단서 특성인 사회적·정적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등장되고, 개인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선호차원 인상평가의 단서 특성인 지적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등장될 것이다. 이것이 이 모형에서 도출되는 특성-우월성가설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우월성은 의존상황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므로, 이 모형에서 특성우월성은 상황우월성에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추론에 입각해 보면, 집단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효과의존상황이 우월상황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정적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사회적·정적 특성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차특성인 지적 특성의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더 정교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문화의 조망에서는 정보 의존상황이 우월상황이 되어 결과적으로 지적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지적 특성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차특성인 사회·정적 특성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더 정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모형에서의 정교화가설의 내용이다.

시안 2 : 분화적 차이 모형 이는 문화적 조망이 대상인물의 특성을 규정하고 한정짓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text{대인평가 } f = \{\text{의존상황} + (\text{문화적 조망} \times \text{대상인물})\} \dots\dots\dots \text{분화모형}$$

이 모형에서는 대인평가가 문화적 조망에 따라 한정되고 규정된 대상인물의 특성과 의존상황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이 모형은 타인에 대한 두가지 의존상황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인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사회에서나 개인주의사회에서나 타인은 효과원으로서의 가치와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효과의 존과 정보의존의 두가지 의존상황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조망은 단지 각각의 의존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대상인물의 특성의 우월성에만 분화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분화적 영향이란 사회적·정적 특성으로 함께 분류될 수 있는 특성들일지라도 집단주의사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특성과 개인주의사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조망에 따라 이 중에서 어떤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되느냐에 차이가 나게 됨을 말한다. 이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지적 특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이 모형에서 가정하는 우월성가설인데, 이 모형에서는 앞서 제시된 규범적 영향 모형과는 달리 이 특성-우월성가설만을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집단주의문화의 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효과의존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대상인물의 사회적·정적 특성 중에서 조화성·단결심·겸양·호감성·신뢰성·과묵함 등을 드러내는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문화의 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효과의존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대상인물의 사회적·정적 특성 중에서 독특성·자율성·외향성·적극성·솔직성·다변 등을 드러내는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될 것이다. 반면에 집단주의문화의 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의존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대상인물의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지적 특성 중에서 노력·협동·신중함 등을 드러내는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되지만, 개인주의문화의 조망을 가진 사람이 정보의존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대상인물의 지적 특성 중에서 능력·경쟁·창의력 등을 드러내는 특성이 우월특성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앞에서 제시된 대인평가에서 강조하고 중시하는 특성의 문화간 차이에 관한 논의에서 자명하게 도출되는 것이다.

이상 이 모형에서 가정하는 특성-우월성가설인데,

이는 문화적 조망이 의존상황의 우월성을 규정하므로써 이에 따라 사회적·정적 특성 또는 지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우월특성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규범적 영향 모형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이 모형에서 가정하는 정교화가설도 규범적 영향 모형과는 다르게 된다. 즉, 규범모형에서는 두 종류의 특성(사회적·정적 특성과 지적 특성)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정교화를 가정하지만, 분화적 차이 모형에서는 같은 사회적·정적 특성 또는 지적 특성 내에서도 문화적 조망과 의존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부각되는 우월특성의 인물에 대해서만 평가가 정교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똑같이 효과의존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조화로운 사람을 독특한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는 독특한 사람을 조화로운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시안 모형의 통합 전술한 바대로 규범모형은 대인평가의 전체 과정이 문화적 조망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하고, 분화모형은 문화적 조망이 우월특성의 지각 과정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두 모형은 서로 대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규범모형과 분화모형이 적용되는 한계조건(boundary condition)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이는 대인평가의 전체 과정이 문화적 조망에 의해 규정되는 조건과 우월특성 탐색 과정에만 선택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확인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Tajfel(1981)의 사회정체감이론을 원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자기개념은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체감을 통해 자존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의 성원들이 자기들이 소속하고 있는 문화에 동일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화권에 소속되므로써 얻는 사회적 정체감이 강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적 조망이 사회행위의 전반에 걸쳐 규범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Sears, Peplau, & Taylor,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소속 문화에 동일시하므로써 문화적 정체감이 강하게 되는 장면에서는 규범모형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화모형이 적용될 것이라는 추론

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속 문화에의 동일시를 크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Triandis(1989, 1990)는 집단에 소속되므로써 얻는 보상이 클 경우, 타집단과 경쟁하거나 타집단 성원들과 섞여 있으므로써 소속 집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및 소속 집단이 명확한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집단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하게 대두됨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 주고 있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자기 문화에 소속되므로써 얻는 보상이 크거나, 타문화와 대비되거나, 해당 문화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에서 문화에의 동일시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조망이 규범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면에서는 규범모형에 따라 대인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장면에서는 분화모형이 적용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규범모형과 분화모형의 한계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에의 동일시의 정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규범모형과 분화모형의 다음과 같은 통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text{대인평가} = f\{(\text{문화 동일시} \times \text{의존상황}) + (\text{문화적 조망} \times \text{대상인물})\} \dots\dots\dots \text{통합모형}$$

이 모형의 앞부분은 규범모형에 해당되고, 뒷부분은 분화모형에 해당된다. 이 모형은 소속 문화에의 동일시가 강하면 이는 의존상황의 유형을 규정하게 되는 규범적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동일시가 약하면 규범적 영향이 사라져 분화모형에 의한 특성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합모형은 규범모형에서 가정하는 특성-우월성가설을 분화모형의 그것으로 대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모형들은 대인평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화간 차이 현상을 필자(1982, 1990a)의 대인평가 이론모형을 통해 조감해 보려는 시도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시안들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모형들의 적합성에 관한 비교 검토가 경험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민경환(1986). 사회 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김경동·안청시 편, **한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수원(1990). 내면화: 사회적 지식의 형성. **한국심리학회지:일반**, 9(1), 54-73.

이현남(1992). 도움의 이원성: 공정지향과 관계지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장성수·이수원·정진곤(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 217-265.

정양은(1988). 조직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심리학회연구**, 4(1), 1-13.

조금호(1982). 대인평가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호오성과 화친성.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조금호(1986).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 197-223.

조금호(1988). 대상인물의 특성과 대인평가의 이원성. **심리학의 연구문제(서울대학교 심리학과)**, 3, 339-373.

조금호(1990a).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 **한국심리학회지:일반**, 9(1), 87-110.

조금호(1990b).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1), 59-81.

조금호(1991).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I): 교육론과 도덕실천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1), 73-108.

한규석(1991a).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1), 132-155.

한규석(1991b).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0(1), 1-19.

Alexander, C.N., & Knight, G.W.(1971). Situated identities and social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Sociometry**, 34, 65-82.

- Alexander, C.N., & Lauderdale, P. (1977). Situated identities and social influence. *Sociometry*, 40, 225-233.
- Anderson, N.H. (1981). *Foundations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 Aronson, E., Brewer, M., & Carlsmith, M. (1986). Experimentation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1). New York: Random House.
- Asch, S.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arnlund, D.C.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kyo: Simul Press.
- Benedict, R. (1947).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London: Secker & Warburg.
- Bond, M.H. (1979). Dimensions of personality used in perceiving peers: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Hong Kong, Japanese, American and Filipino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4, 47-56.
- Bond, M.H., & Forgas, J.P. (1984). Linking person perception to behavior intention across cultures: The role of cultural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337-352.
- Bond, M.H., & Hwang, K.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ntempo, R., Lobel, S.A., & Triandis, H.C. (1990).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in Brazil and the U.S.: Effects of allocentrism and anonym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200-213.
- Brewer, M.B.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Y.K. Srull & R.S. Wyer, Jr. (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1). Hillsdale, NJ: Erlbaum.
- Brislin, R.W., Lonner, W.J., & Thorndike, R.W. (1973). *Cross-cultural research methods*. New York: Wiley.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New York: Plenum.
- Cha, J.H., & Nam, K.D. (1985).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
- Chang, W.J. (1983). The prediction of junior high-school students' sociometric status from some psycho-soci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Oregon.
- Chien, M. (1977). Factors related to peer interaction among school children in urban and rural areas. *Psychological Testing*, 24, 32-40.
- Chung, Y.E. (1990). Void and non-conscious processing. I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d.),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lark, M.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Cousins, S. (1989). Culture and selfhood in Japan and the U. 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Doob, L.W. (1980). The inconclusive struggle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59-73.
- Dumont, L. (1970). *Homo hierarchicu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edler, F.E. (1978). Recent development in research on the contingency model. In L. Berkowitz (Ed.), *Group processes*.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A.P. (1990). *Making up society: The four elementary relational structures*. New York: Free Press.
- Fiske, S.T., & Neuberg, S.L.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3).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S.T., & Taylor, S.E. (1984). *Social psychology*.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ke, S.T., & Taylor, S.E. (1991).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Fragar, R. (1970).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03-210.
- Gergen, K.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ergen, K.J. (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Content and implications. In K.J. Gergen & K.E.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Springer-Verlag.
- Gergen, K.J., & Gergen, M.M. (1988). Narrative and the self as relationship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1). New York: Academic Press.
- Gibson, J.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55). On face-work: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18, 213-231.
- Goffman, E. (1961). *Asylums*. Garden City, NY: Anchor Books.
- Greenwald, A.G., & Pratkanis, A.R. (1984). The self. In R.S. Wyer, Jr. & T.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3). Hillsdale, NJ: Erlbaum.
- Gudykunst, W.B., Yoon, Y., & Nishida, D. (1987).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95-306.
- Hamilton, V.L., & Sanders, J. (1983). Universals of judging wrongdoing: Japanese and Americans compa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9-211.
- Hastie, R., & Park, B. (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judgment depends on whether the judg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8.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lton, J.L., & Darley, J.M. (1991). The effects of interaction goals on person perception. In M.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4). New York: Academic Press.
- Hofstätter, P.R. (1966). *Einführung in die Sozialpsychologie*. Stuttgart: Kröner Verlag.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83).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J.B. Deregowski, S. Dziurawiec, & R.C. Annis (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su, F.L.K. (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

- pologist*, 73, 23-44.
- Hui, C.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22, 17-36.
- Hui, C.H., & Triandis, H.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Iwao, S. (1988, August). *Social psychology's models of man: Isn't it time for East to meet West?* Invited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cientific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Jones, E.E. (1985).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1). New York: Random House.
- Jones, E.E.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Freeman.
- Jones, E.E., & deCharms, R. (1958). The organizing function of interaction goal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7, 155-164.
- Jones, E.E., & Gerard, H.B.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Jones, E.E., & Thibaut, J.W. (1958). The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 Tagiuri & L. Petrullo (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tayama, S., Markus, H., Tummala, P., Kurokawa, M., & Kato, K. (1990). Culture and self-cog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 Kluckhohn, F.R., & Strodtbeck, F.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 Row, Peterson.
- Korten, F.F. (1974).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sex on the perception of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9, 31-44.
- Kuhlen, R.G., & Lee, R.J. (1943).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acceptabi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4, 321-340.
- Kuhn, M.H. & McPartland, T.S. (195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elf-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68-76.
- Kuhn, T.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w, W.J.F. (1983). Personality traits of Hong Kong secondary school teachers. *Chinese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11, 36-46.
- Livesley, W.J., & Bromley, D.B. (1973).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Wiley.
- Maine, H. (1963). *Ancient law*. Boston: Beacon Press.
- Manis, M. (1975). Is social psychology really differ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427-436.
- Markus, H.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R., & Kitayama, S. (1992).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G.R. Goethals & J. Strauss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elf*. New York: Springer-Verlag.
- Markus, H.R., & Zajonc, R.B. (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1). New York: Random House.
- Matsuda, N. (1985). Strong, quasi-, and weak conformity among Japanese in the modified Asch proced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83-97.
- McArthur, L.Z., & Baron, R.M. (1983). Toward an ecological theory of social perception.

- Psychological Review*, 90, 215-247.
- Miller, J.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G. (1986). Early cross-cultural commonalities in social expla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14-520.
- Miller, J.G. (1987). Cultur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differentiation in person descrip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309-319.
- Miller, J.G. (1991).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morality of beneficen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nual*, 15, 11-23.
- Miller, J.G., & Bersoff, D.M. (1992). Cultural and moral judg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Miller, J.G., Bersoff, D.M., & Harwood, R.L.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Miller, J.G., & Luthar, S. (1989). Issues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moral judgment. *Social Cognition*, 3, 237-261.
- Mills, J., & Clark, M.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 Beverly Hills, CA: Sage.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ey.
- Misumi, J. (1985). *The behavioral science of leadership: An interdisciplinary Japanese research program*.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izoka, D.T., & Ryckman, D.B. (1990). Attribution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A comparison of six Asian-American ethnic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434-451.
- Moscovici, S. (1981). Forward. In P. Heelas & A. Lock (Eds.), *Indigenous psychologies: The anthropology of the self*. London: Academic Press.
- Myers, D. (1987).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Norman, W.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Peevers, B.H., & Secord, P.F. (1973). Developmental changes in attribution of descriptive concepts to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20-128.
- Pepitone, A., & Triandis, H.C. (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8.
- Piaget, J. (1926).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 Harcourt Brace.
- Pryor, J.B., & Ostrom, T.M. (1981).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social information: A converging operations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28-641.
- Quattrone, G.A. (1986). On the perception of a groups variability.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Rosenberg, S., & Sedlak, A. (1972). Structural representatives of perceived personality trait relationships. In A.K. Romney, R.N. Shepard & S.B. Nerlove (Eds.),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and applications in*

- the behavioral sciences* (Vol. 2). New York : Seminar Press.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New York : Academic Press.
- Ross, L., & Nisbett, R.E.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Sampson, E.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 762-782.
- Sampson, E.E. (1978). Scientific paradigms and social values : Wanted-A scientific revol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32-1343.
- Sampson, E.E. (1983). *Justice and the critique of pure psychology*. New York : Plenum.
- Sampson, E.E. (1989).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for psychology : Globalization and psychology's theory of the person. *American Psychologist*, 44, 914-921.
- Schlenker, B. (1974).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15.
- Schneider, D.J., Hastorf, A.H., & Ells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 (2nd ed.). Reading, MA : Addison-Wesley.
- Schwartz, B. (1986). *The battle of human nature : Science, morality and modern life*. New York : Norton.
- Scribner, S., & Cole, M. (1973).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Science*, 183, 554-559.
- Sears, D.O., Peplau, L.A., & Taylor, S.E. (1991). *Social psychology* (7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Shweder, R.A. (1984). Anthropology's romantic rebellion against the enlightenment, or there's more to thinking than reason and evidence. In R. A. Shweder & R. A. Levine (Eds.), *Culture theory :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A. (1990). Cultureal psychology : What is it? In J.W. Stigler, R.A. Sh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A., & Bourne, E.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A. Shweder & R.A. Levine (Eds.), *Culture theory :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A. & Miller, J.G. (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 How is it possible? In K. Gergen & K.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 Springer-Verlag.
- Stevenson, H.W., & Stigler, J.W. (1992). *The learning gap*. New York : Summit Books.
- Stevenson, H.W., Lee, S.Y., & Stigler, J.W. (1986). Mathematics achievement of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cience*, 231, 693-699.
- Stover, L.E. (1974). *The cultural ecology of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categories :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ta, T. (1987). Self-deprecatative tendencies in self-evaluation through social comparison.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7-36.
- Toennies, F. (1957). *Community and society* (C.P. Loomis, Trans.). East Lansing, MI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C. (1978). Some universals of social

-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1-16.
- Triandis, H.C. (1988).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of cross-cultural psychology. In G. K. Verma &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London: MacMillan.
- Triandis, H.C. (1989). The self and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C., Bontempo, R., Villareal, M.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C., Leung, K., Villareal, M.J., & Clark, F.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C., McCusker, C., & Hui, C.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 3-25.
- Weldon, E. (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 Wilson, R.W. (1974). *The moral state: A study of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 Wyer, R.S., Jr., & Carlston, D.E. (1979). *Social cognition, inference, and attribution*. Hillsdale, NJ: Erlbaum.
- Yamauchi, H. (1988). Effects of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 619-626.
- Yang, K.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159-170.
- Yang, K.S. (1986). Chinese personality and its change. In M.H.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ang, K.S., & Bond, M.H. (1985). Dimensions of Chinese person perception: An emic approach. In C. Chiao (Ed.),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hinese Modernization and Chinese Culture*.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 Yoshida, T., Kojo, K., & Kaku, H. (198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 30-37.
- Zebrowitz, L.A. (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Ziller, R.C. (1965). Toward a theory of open and closed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64, 164-182.

**Cultural Differences in Person Evaluation :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Extendibility of the Dual-Aspect Model**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From the cross-cultural researches on individualism-collectivism, it has been founded that various social behaviors, especially evaluation of other persons, of people who live in individualistic culture are enormously different from those of collectivist culture. The author construed these differences as results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human being and their relationships. In individualistic culture, they consider the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dividual person as the ontological ultimatum of a society. Therefore they stress the uniqueness of an individual and differences among persons, self-assertion and competition, and personal ability and the end results of one's work. In sharp contrast with this, people of collectivist culture regar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as the primary unit of a society and thus do not stress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an individual person. Therefore they seek harmony in group and similarity among persons, self-control and cooperation, and effort and the process of work in achieving situations. The author suggested that these differences between two cultures can be accounted according to the two working hypotheses of the Dual-Aspect Model of Person Evaluation, saliency hypothesis and elaboration hypothesis, which was proposed by him (Cho, 1982, 1990a). On the basis of this conjecture,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of the Dual-Aspect Model was groped after cautiously to incorporate the interpretation of the phenomena of cultural differences in person evaluation into its scope.